

# 일개 반도체 부품 제조 사업장의 직무스트레스의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 영향

연구 목적 : 정신질환은 유전적, 생물학적, 환경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적 위험요인 가운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이 밝혀져 있으나, 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유병률이 낮은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개 반도체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2017년 4월 부산 소재의 일개 반도체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수행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단면연구이다. 총 460명의 대상자에서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및 한국형기분장애 질문지(Korean Version Mood Disorder Questionnaire)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교차분석 결과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와 유의한 차이는 나이, 성별, 직종, 흡연여부, 음주 수준, 직무스트레스에서 보였다( $p$ -value<0.05). 또한 직무스트레스 세부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는 직무요구, 직무불안정, 직장문화에서 보였다( $p$ -value<0.05).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총점에서 고위험군이 직무스트레스 저위험군에 비해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 영향이 높았다 (OR 2.31, 95% CI 1.10-4.88) 그리고 직무스트레스의 세부항목 중 직무요구(OR 2.56 CI 1.27-5.17), 직무불안정(OR 4.42, CI 1.19-16.42), 직장문화(OR 2.55, CI 1.29-5.05) 세 영역의 고위험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 영향이 높았다.

고찰: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총점, 직무요구, 직무불안정, 직장문화 고위험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 영향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는 유병률이 낮고 관심이 부족해 사회적으로 이를 예방하려는 시도가 드물었다.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근로자는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방을 위해 직무스트레스 관리 필요성이 있다.

키워드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 직무스트레스